

# 정보화사회 적극대응하는 출판행정

## 출판협회 신임회장단 출범하며 각종 신규사업 본격추진

출판계와 출판인을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92년 올 한해는 어려움과 경사가 빈번히 교차한 말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출판업의 시장개방이란 거센 물결이 현실로 확인됐고, 전반적 국민경제의 침체 속에서 출판계도 거듭되는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게다가 다가올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전자출판물의 개발 등이 그동안의 산적한 과제를 고스란히 짊어진 출판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93년 책의 해 결정'이란 희소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할일이 더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일복이 터진 출협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월 10일 회장단이 새로이 구성된 것으로, 제40대 회장에 금성출판사 김낙준대표가 선출됐고, 윤희두(범우사 대표)씨 김현식(동아출판사 대표) 나춘호(예림당 대표)씨가 각각 부회장에 피선됐다. 김낙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펼칠 사업의 골자를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첫째, 남북출판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출판의 국제교류를 더욱 확장한다. 둘째, 정보화사회에서의 출판의 문화적 산업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구상해 단계별로 마련하며, 셋째로는 출판·서적상계의 공동노력으로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 출판물의 물적 유통채널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현대화시킨다. 넷째는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출판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다섯째 협회기능의 강화와 상설분과위원을 두어 회원들의 협회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신임 회장단 출범으로 신규사업 늘어

신임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출협은 이제까지의 업무와 병행해 신규사업을 추가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출협의 변모를 살피는 것은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출판산업 장기발전위원회'의 제1차회의 자료를 훑어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회의록에 밝혀진 위원회의 목적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각 정당의 출판진흥 정책 방안 제공'부분을 '각 정당에 출판진흥 정책 수립 촉구'로 수정하고, 시장개방과 더불어 향후 몇년간에 국내외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심화될 것이 확실한 만큼 '국내외의 저작권 대책'도 목적의 한 항목으로 추가시킨다라고 돼 있다. 다음 위원회는 연구과제로 4가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의 양성 ▲유통 ▲출판정책 ▲전자출판 개발이 그것. 먼저 기존의

### 제40대 회장단이 들어선 출협의

### 행정방향은, 남북출판교류사업의

### 적극 추진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 출판의 문화·산업적 기능 확대를

###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의 분야별

### 실천,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혁을

### 추진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 올해 출협은 책의 해 준비사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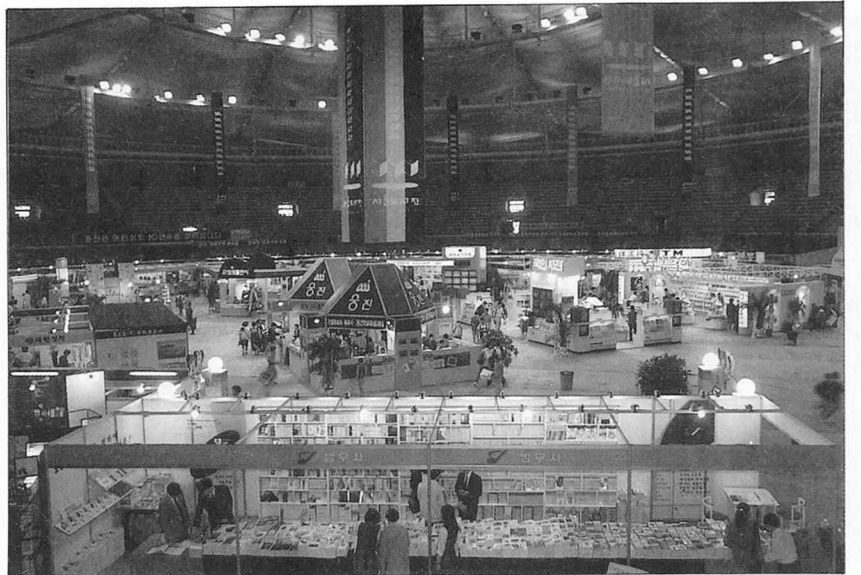
###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사업의

### 연계에 무게중심이 놓여졌다.

학원들과 출판대학의 기능을 나눠 출판전문인력을 길러내고, 대학에 출판학과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전문서적 저술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인력배양책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또 유통부문에 대해서는 첫째, 책의 정가에 대한 연구, 둘째 분야별 유통기구 설립, 셋째 반복의 시한 문제, 넷째 단계별 적정 마진을 연구, 다섯째 물류의 합리화방안이 연구과제로 상정돼 있다. 다음으로 출판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와 금융, 법제로 나뉘며, 세계면에서는 부가세 철폐나 환급·산재보험요율 인하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출판금고와 협동조합 운영의 합리화와 이용율을 재고하는 한편, 출판물에 대한 체신요금 인하 및 정책적 지원 유도 등이 출판정책 연구과제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출판 개발과 관련된 연구과제로는 CTS-DTP시대의 출판과 전자출판의 매체개발 전략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 출판물 유통구조 현대화가 중점사업

'출판산업 장기발전위원회' 회의록과 더불어 출협의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데는 제2·3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92년도 사업계획안의 항목별 검토가 유용하다. '조직운영 및 회원권의 옹호와 친목을 위한 사업'과 '출판산업의 과학화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출판문화 국제교류사업' '출판·홍보사업' '교육·연수사업' '회관관리 및 납본대행산업' '출판산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구성된 2차 이사회 회의록은 "신규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이미 작성된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권두에 밝히고 있다.



신임 회장단 구성과 책의 해 제정으로 출협은 어느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사진은 '92서울도서전 광경'

구체적인 중점사업으로는 '92 서울도서전·회관확충·출판의 정보산업화·출판유통 현대화 추진·국제아동도서 그림동화 원화전·워크숍 개최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규산업으로는 1. 전자출판, 유통현대화, 남북 출판교류협력 대책 등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2. 출판용어 통일안 작성 추진 3. 한글·한자·코드체계 연구 4. 국제 아동도서 평의회 한국기구 위원회 결성 5. 출판업무 및 장표의 표준화 사업 6. 남북 출판교류 협력사업으로 압축돼 있다.

이 가운데 예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 92년 들어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운 기획안 몇가지를 예로들면서 출협의 변모를 짚어본다. 무엇보다 먼저 손꼽히는 것은 출판물 유통구조 현대화 및 ISBN·POS 제도 보급의 확대이다. 다음으로 '국제아동도서 평의회 한국기구 설립'과 '국제 복제권기구연맹(IFRRO) 세미나 개최'를 실천요강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겼다. 또한 납본대행사업에서는 납본보상금의 지급 강화와 납본사무의 전산화운영 및 기능강화를 신규사업으로 계획해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왕에 출협이 꾸려오던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출판정책을 '경영합리화 담당' '기획담당' '국제교류 담당' '교육·연수담당' 등의 실무부서로 나눠 담당 상무이사제를 뒤 소관 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출협의 올해 제3차 이사회는 '책의 해'를 주안점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것을 제외하고, 제2차 이사회 의결의 결과인 사업보고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14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개최, 92년도 무단복사 금지대책활동, 제17

회 어린이 독서주간 기념 '제3회 국제 그림동화원화전' 및 '세계 어린이 그림책 포스타전'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개최,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보급사업, 3대 독서상(모범장서가·모범독서운동가·우수새마을문교) 시상, 제13회 한국어린이 도서상 시상, 제10회 한국과학기술 도서상 시상, 출판사업('출판문화'발간·'출판연감'발간·'회원명부'발간), 국제교류사업(국제도서전 참가·출판연수과정 참가), 출판대학 운영, 제17회 어린이 독서주간 행사·제38회 독서주간 행사 공동주관, 공공도서관 세미나·도서전시회 등의 사업사항 결과가 실려 있다.

### '책의 해' 관련 사업계획 마련에 부심

출협이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3차 이사회 서류에 나타난 이상과 같은 수습여가지의 사업에서 보듯 45년 역사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신임 회장단을 맞이한 첫해인 92년은 전년도와 전임회장단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과 '책의 해' 준비에 역점을 둔 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6천여 출판사와 출판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장개방과 출판산업화를 다져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출협 행정의 성공여부는, 출판을 둘러싼 변화와 그 변화의 속도를 얼마만큼 성실히 감지함과 아울러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달려있음이 분명하다.

— 최태원 기자